

# “수고했어” 수험생들 문화로 토닥토닥

광주·전남 수험생 위한 연극·연주회 문화행사 풍성  
겨울연극축제-팸, 연극 ‘맞선다방’·‘작업의 정식’ 반값  
메가박스·롯데시네마 수험표 지참 땀 할인 혜택  
진로직업교육·예술인 학교 직접 찾아가 체험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수험생을 위해 15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다양한 문화행사와 할인혜택이 마련된다. 예술인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수험표를 가져 가면 할인된 가격으로 연극·뮤지컬·영화를 볼 수 있다. 가족 이야기를 다룬 연극으로 꾸며지는 ‘겨울연극축제-팸(Fam) 시리즈 2018’은 수험표를 가져온 관객에게 반값 할인을 해준다. 12월29일까지 광주시 동구 호남동 예술극장 등에서 펼쳐지는 이번 연극제에서는 대구 극단 고도의 ‘18통 웨미리 부패와 청춘의 ‘늪은 부부 이야기’, 헨릭 입센의 대표작 ‘인형의 집’ 등 7편을 단돈 1만원에 볼 수 있다.

중앙아트홀에서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맞선다방 1985’와 상무지구 기본층극장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작업의 정식’ 역시 반값(1만5000원) 할인을 한다. ‘맞선다방 1985’는 1980년대 다방을 배경으로 맞선상대가 뒤바뀐 네 남녀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를 다뤘다. 지난 2012년 초연한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업의 정식’은 ‘연애 고수’의 눈으로 본 이성의 심리를 재치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 연극이다. 수능 다음날인 16일 광주아트홀에서 열리는 박영렬 재즈 콰르텟의 ‘뷰티풀 러브’ 공연은 관람료 반값인 5000원에 즐길 수 있다. 메가박스는 15-18일 수험표를 제시하면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신

비한 동물사건2)를 5000원에 관람하는 혜택을 준다. 동반 1인까지 혜택을 받는다. 수험생은 물론 예비 수험생들도 이달 30일까지 수험표, 학생증, 청소년증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면 일반(2D) 영화를 6000원에 본다. 롯데시네마에서도 12월 3일까지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영화를 6000원에 관람할 수 있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고한 나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19명에게 금 1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15-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 3홀에서 진행되는 열리는 광주국제아트페어는 광주지역 고3 수험생들을 행사기간 내 무료로 초청한다. 10개국 71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미술장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을 꿈꾸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12월2일

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연극 연기와 무대디자인, 무대 의상디자인 이론교육과 실습을 함께 한다.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고3을 위한 문화체험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수능 이후부터 고3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2018 상상만개’를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45개 학교에서 펼친다. 웹툰 ‘아만자’의 김보통 작가는 11월28~29일 별교여고와 순천정암고를 찾아가 학교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본다. 장성 문향고는 12월12일 ‘나인틴,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정소정 극작가와 웹드라마 각본을 짜본다. 영암고 학생들은 박훈규 미디어아티스트와 함께 오는 12월19일 학교 공간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해 SNS로 생중계하는 ‘뷰직 오케스트라’에 참여한다. 영광고는 12월17일 ‘첫눈이 오면 마임’을 목포여고·목포덕인고·전대부고는 각각 12월6·7·18일 가면극과 음악을 접목한 ‘이 시간이 가면’을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친 수험생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열린다. 연극 ‘맞선다방 1985’(왼쪽)와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연극 연기와 무대디자인, 무대 의상디자인 이론교육과 실습을 함께 한다.

## 대금으로 듣는 ‘육자배기’ ‘흥타령’



### 대금연주단 어울림 연주회 17일 유·스퀘어문화관

대금연주단 어울림(단장 채광자)이 오는 17일 오후 3시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11번째 정기연주회 ‘강구연월(康衢煙月)’을 연다. 지난 2008년 창단한 어울림은 우리 전통국악을 계승하기 위해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 재능 기부도 펼치고 있다. 먼저 국악합주곡 ‘수제침’으로 문을 연다. 이날 무대에서는 전 4장 중 3장과

4장을 연주한다. 이어 마미숙, 강보경, 김다경 명창과 함께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산은 반락’, ‘개고리타령’, ‘흥타령’ 등으로 흥을 돋운다. 마지막으로 전통무용가 이만야의 춤과 함께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연주한다. 이순남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는 배현주, 신선민, 김민경, 정성수 등이 출연하고 채영수·이초룡(피리), 이정아(아쟁), 박상호(장구), 이화림(가야금) 등이 호흡을 맞춘다. 무료 공연. 문의 010-3632-362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예술공장 토요일문화만찬 ‘풍당풍당 북 콘서트’

### 17일 소촌아트팩토리

오는 17일 오후 2시 소촌아트팩토리 커뮤니티 카페 ‘아트코핀’에서 ‘풍당풍당 북 콘서트’가 열린다. ‘예술공장 토요일문화만찬’의 네 번째 기획으로 이번 콘서트에는 어쿠스틱 밴드 ‘센치한 버스’가 출연한다. 이들은 나태주 시인의 시 ‘꽃말’을 낭송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동화책 ‘딴 생각 중’, ‘피터팬’, ‘별소년 쌍실이’의 일부를 발췌해 낭독한다. 또 세월

호참사를 다룬 곡 ‘꽃을 삼킨 바다’와 유재하 ‘가리워진 길’, 김창환 ‘너의 의미’, 아이유 ‘밤편지’ 등 친숙한 대중가요를 부른다. 공연 뒤에는 관객과 커피와 다과를 함께 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예술공장 토요일문화만찬’의 12월15일 행사에는 4인조 인디밴드 ‘AV(어메이징 비주얼)’이 나온다. 관람료 5000원. 문의 062-960-368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계간지 ‘창’ 가을호 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발행하는 계간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통권43호)가 나왔다. 표지이야기로 사라져가는 도시문화유산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엄수경 작가의 ‘기억을 호출하다’(전 광주 505보안대, 2015)를 실었다. ‘특집 기획’은 ‘민선 7기 문화정책과 기초예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을 지상중계했다. 광주시의 기초예술 활성화의 핵심 정책과 주요사업 및 기초 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인과 시민 문화단체와의 소통과 협치 방안에 대해 문병재 문화도시정책관과 조인형 광주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문, 이동순 조선대 교수,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전교필 대인예술시장 감독 등의 토론문을 실었다.

특집기획대담으로 뉴욕의 광장들에서 ‘오월 아리랑과 평화’ 퍼포먼스를 펼친 주홍 치유예술가를 재단 감정의 편집위원장이 만났다. 임준성 광주여대 교수의 ‘호남의 현판-주연 이야기’ 기획연재는 푸르름으로 둘러싸인 누정 ‘환백당’을 다뤘다. ‘문화재단’ 코너에서는 김만호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최근 논문 ‘광주전남 읍성의 현황과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독립출판과 동네책방의 현실을 동네책방지기인 타인의 책 지음책임 김경국 대표가 진단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5·18 다룬 소설 ‘그들의 새벽’ 연극으로 만나다

### 16·17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문순태의 소설 ‘그들의 새벽’을 연극으로 만난다. 푸른연극마을은 연극 ‘그들의 새벽’을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17일 오후 4시·7시 30분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소설 ‘그들의 새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상상대의 단편소설 ‘망월’에서 영감을 받았다.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가 연출하고 배우 이당금과 함께 각본을 맡았다. 푸른연극마을은 ‘그해 오월의 진혼곡 새’, ‘짬뽕’,

‘오월의 신부’ 등 오월 광주를 다룬 연극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다. 1980년 5월 형을 잃고 어머니마저 아프게 된 작가가 이정하는 당시 이렇듯 없이 사라진 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의 극본에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중국집 사장 만호와 철가방 영구, 구두닦이 기동이, 거지소녀 월순이, 다방 아가씨 미스진 등이 등장한다. 이당금, 최장우, 조승희, 송한울, 한송이, 서혜주 등이 출연한다. 전석 2만원(학생 5000원). 문의 062-226-244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극 ‘그들의 새벽’ 연습 모습.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